

에이즈를 음지에서 양지로

글_ 김 난 회 · 구라선교회예수의원 의무원장/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회장

국제적으로 에이즈가 오래 전부터 이슈화 되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체계적으로 세워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감염인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차별과 편견극복을 위한 인권 운동과 에이즈 예방 운동을 주체적으로 펼치고 있고, 인도에서는 에이즈치료제 특허약 복제금지법안 등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미 에이즈는 불치병이 아니라 만성병으로 재정의 되어 있지만 국민적·국가적 관심 부족으로 의학적,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도덕적, 감성적 판단이 앞서서 에이즈를 '죽을병 내지는 죽인병'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국내의 에이즈에 대한 관점이다. 따라서 HIV 감염인을 환자라 보기보다는 범죄자로 정죄하는 사회적 인식을 낳았다.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미성숙한 감성적 판단 성향은 매사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로 인하여 감염인들을 사회의 일원에서 배제하게 된 오류가 초래되어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입각한 감염인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에이즈 민간단체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당국, 정치계, 경제계, 학계에 걸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올바른 이성적 판단이 감성적 오류를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이 필요하고 에이즈 분야에서는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감염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마련하는 기획 등을 통해 에이즈 예방교육이나 홍보와 감염인 재가복지지원 및 상담을 감염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에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야 가능한 이들의 인권은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기 십상이다.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 인권 회복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인 스스로가 준비하고 계획하여 헌신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전면에 등장하였을 때 민간단체와 정부와 언론은 진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들과 함께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음지의 에이즈를 양지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